

• 제13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대한건
축사협회 참가보고서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 의회 대한건축사협회 참가보 고서

Conference Report : The 13th
China, Japan, Korea Registered
Architects Organizations Meeting
(November 2009, Jinggangshan
Jiangxi China)

참가개요

지난 2009년 1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
간에 걸쳐 주최국 중국의 장시성(江西省) 징
강산시(井岡山市)에서 제13회 한·중·일
건축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1997년 1월에
대한건축사협회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그
리고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가 교류협
정을 체결한 이래로 매년 주최국을 바꿔가
면서 13회에 이르게 되었으며, 시장개방에
대비한 건축사 자격의 상호인정과 각국의
건축계 주요 관심사를 한·중·일 3국이 함
께 논의하는 자리이다.

금번 협의회는 당초 8월 중 우루무치에서 개
최 예정이었으나, 신종플루의 창궐로 1차 연
기되고, 우루무치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장시성 징강산시로 최종 확정되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은 11월 23일 오후 장시
성의 성도인 난창시에 도착하여 중국 측의
환영을 받았다. 이후 4시간 30분간의 버스
여행 끝에 '중국 혁명의 요람'으로 불리는
징강산에 당도하여, 징유웬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이후 일정은 24일(화)에 제1회 한중
일건축사실무핸드북위원회와 환영만찬, 25
일(수)에는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26
일(목)에는 다오위엔 구촌 건축물 견학 및 환
송오찬으로 진행되었다.

각국의 대표단은 다음과 같다.

•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 of
P.R.C.): 11인

- Wang Suqing²⁾(NABAR 회장), Chen
Zhong(중국 주택도농개발부 건설시장감독
국 국장), Zhao Chunshan(주택도농개발부
건축사자격등록센터 회장), Cui Kai(NABAR
부회장), Xiu Lu(주택도농개발부 건축사자격
등록센터 부회장), Chen Bo(주택도농개발부
건설시장감독국 과장), Wan Bin(주택도농
개발부 건축사자격등록센터 과장), Zhang
Baiping(중국건축학회 사무차장), Cai
Chen(주택도농개발부 건축사자격등록센
터 직원), Yao Tang(초청연사, 난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Zhang Li(초청연사, 칭화
대학교 건축대학 부교수)

•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10인

- Watanabe Sadao(JFABEA 이사),
Yanagawa Harufumi(국제위원), Sakurai
Yasuyuki(국제위원), Hayakawa Fumio(국
제위원), Iwata Sako(초청연사, 회원),
Shimizu Koichiro(회원), Yamanaka
Yasunori(전무이사), Hino Yasuhiko(일본
건축교육정보센터 보급부장), Kono
Akiko(일본건축교육정보센터 직원), Zhou
Hui(통역/상해일건설계 직원)



환영만찬



환영만찬 중 선물교환 와타나베 사다오 이사, 왕수칭 회장, 최영집 회장

1) 각 회의 협의회 명칭 중국기명은 당해년 개최국-전년-차년 순이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중·일' 순으로 표기함.
2) 영문 성명이나 한·중·일 3국의 성명 표기방식을 따라 성-이름 순으로 표기함.

• 대한건축사협회(KIRA): 총 11인

- 최영집(회장), 신춘규(이사), 신정철(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이근창(국제위 전문위원), 최재희(국제위 전문위원), 김성민(국제위원), 민규암(국제위원), 여구호(국제위원), 진린(초청연사, 주.아키텍플랜 도시·단지 설계연구소 실장), 오세령(국제협력팀 대리), 정부인사: 최종화(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주무관)

11월 24일 화요일에 개최된 제1회 한·중·일 건축사실무핸드북위원회에서는 건축사업역, 외국건축사 법적지위, 업무 대가기준에 관한 각국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향후 3년간 자료를 수집하여 2011년에 개최될 제3회 위원회 이후 핸드북을 출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중은 일본이 핸드북 편집을 주도할 것을 제안하였고, 일본은 검토 후 회담하기로 하였다.

이어 25일 수요일에 개최된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서는 각국의 APEC 등록건축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본 제도의 틀 안에서 3국간 등록건축사 교류에 관한 협조를 긴밀히 하기로 결의하고, 각국의 건축 관련 최근 법령·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의회 일정 중 오후에 개최된 건축분야 기술정보 교류세션은 “중간규모 도시·지구 건설”, “특수한 지역 건축디자인”을 주제로 하였으며, 현지 건축사 50여명이 참관하는 등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차기회의는 저에너지 프로젝트를 주제로 2010년 가을 중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한중일 3국 대표의 회의록 서명으로 제13회 협의회가 마무리 되었다.

세션별 발표내용 및 협의결과

제1회 한중일건축사실무핸드북위원회

【 김성민 국제위원 】

□ 핸드북의 의미 및 급회 토의 내용

지난 2008년 일본 측의 제의로 시작된 핸드북 위원회는 한·중·일 3국의 건축사가 나머지 국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자

국과 다른 건축 시스템으로 인한 오해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3국의 시스템을 비교하여 설명하는 핸드북을 만들기로 결정하였다.



핸드북위원회 한국대표

금년이 실질적인 첫 번째 위원회로서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토의하기로 하였다.

- 1)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업무 흐름
- 2) 자국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의 업무 범위
- 3) 건축설계비 산정 방법
- 4) 외국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업무
- 5) 건축 허가 절차
- 6) 개발행위 허가 절차

□ 각국 발표내용

1) 일본

핸드북을 제안한 일본은 자국의 건축사 업무에 대하여 충실한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하였다.

건축사의 업무 구분은 연구/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중 실시설계 추가용역, 인허가 업무, 공사계약 관련 업무, 공사 감리 및 준공 후 관리 업무 등 약 8단계로 구분되어 상세하게 건축사의 업무가 정리되어 있으며, 특이 사항은 자국 건축사와 외국 건축사의 업무를 구분해 놓아서 외국 건축사는 기본설계 등 디자인에 관련된 업무에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국 건축사는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지만 실시설계 등 현실적인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건축사의 업무대가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법적인 지위를 가지지는 못하고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의 지침에 따른 업무대가 산정 방식은 우리의 실비정액가산식과 유사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본에서 외국 건축사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며 일본의 1급 건축사 자격을 획득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은 호주 및 뉴질랜드를 필두로 APEC회원국과 건축사 상호 인증에 대하여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어서 상호 협약이 이루어진 국가와는 간단한 인터뷰나 자국 언어의 논술형 시험을 통해서 동등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일본의 건축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 상세한 다이어그램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외국 건축사가 인허가 업무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중국

사실 일본과 한국은 중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핸드북을 활용할 생각으로 이 위원회를 시작하였으나 중국의 자료 준비가 불충분하였고 건축사 업무대가 등 많은 부분을 준비한 담당자가 불참하여 다소 실망스러웠다.

중국 건축사의 업무 구분은 타당성 조사 및 기획, 준비 업무(대지 조사, 설계, 공사 준비 등), 공사 준비(실시설계 승인, 자재 및 장비 구매, 시공 허가 등), 공사 감리, 부동산 판매(주거건축의 사전 분양, 주택 등록, 금융 심사 등) 및 준공 후 업무(건축대장 등기, 거주자 방문 및 사후 관리 등)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주도의 행정 특성상 건축주, 건축사 및 시공자의 구분 없이 업무 흐름에 따라 통합되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 건축사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국 건축사와 협업을 통해서만 활동할 수 있으며 모두가 궁금해 하는 건축사의 업무대가 등은 자료가 미비하여 추후 보완하기로 하였다.

3) 한국

한국은 일본이 마련한 양식에 맞추어 건축사 업무기준을 토대로 비교적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하였다. 특히 공사비에 따라 산정되는 건축사보수기준은 여러 위원들이 많은 흥미를 보였고 상세한 질문을 하기도 하였다.

□ 회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첫 번째 핸드북 위원회는 중국의 미비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핸드북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되었고, 이번 회의를 통하여 전문용어의 정리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일본이 중심이 되어 핸드북에 관련된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한국의 국토 해양부의 담당자, 일본의 일본건축교육보급센터의 담당자 그리고 중국의 관련 부처 담당자가 참석하여 단순히 민간단체의 교류 수준을 넘는 공식적인 협의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추진 일정은 최초 제안에 따라 3년에 걸친 핸드북 위원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2011년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건축사업의회 이후에 핸드북을 출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 건축사가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시장을 두드릴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일차적으로는 광대한 중국과 수준 높은 일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건축 시스템을 비교 설명한 핸드북이 발간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여러 나라의 건축 시스템을 비교할 수 있는 제2, 제3의 핸드북이 나와서 한국 건축사의 해외 시장 개척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APEC등록건축사제도에 관한 사항
【 신춘규 국제 담당이사 】**

□ 각국주요 보고내용

1) 중국

현재까지 77명의 APEC 등록건축사를 배출했으며 최근에 중국의 Monitoring Committee를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에서 중국건축학회(ASC: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로 변경했으며 웹사이트(www.apecarchitect.org.cn)를 오픈했다. 새로 구성된 2기 위원회는 임기가 4년이며 17명 내외로 구성되었고 중앙이사회에서 거론될 안건 등 APEC 등록건축사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할 것이며 다른 경제국과의 서비스 조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2) 일본

일본의 경우는 APEC 등록건축사제도의 회원국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 및 상호인증을 진행해온 나라중 하나다. 약 450명의 APEC 등록건축사를 등록한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50명에서 등록건축사가 축소된 이유는 같다고 한다.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와는 APEC 등록건축사를 중심으로 Domain Specific의 항목으로 상호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데 자국 내에 활동을 원하는 APEC 등록건축사는 모국의 언어로 2개의 서술 시험을 보면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한국

한국은 그동안의 위원회 활동 내용과 제2기 위원회의 구성, 제2기 등록건축사의 재등록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APEC 등록건축사가 277명에서 2기에 168명으로 축소된 이유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 새로 등록절차를 거쳐 더 등록을 진행할 것과 제2기 위원회의 구성 및 계속교육의 시행 등에 대해 설명했다.

□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토론

한국은 앞으로 별다른 진행사항이 없이 APEC 등록건축사에 대한 혜택이 없을 경우 APEC 엔지니어와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제도로 될 우려를 지적하고 우선 3국이 적극적으로 등록건축사를 위한 혜택을 마련하는 데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일본도 이에 동조하여 우선 3국이 APEC regional council을 만들어 등록건축사간의 교류를 가능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해 토론해 나가자고 동의했다. 단, 중국의 경우 APEC 등록건축사위원회가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에서 학회(ASC)로 이전된 것

한·중일 협의회 발표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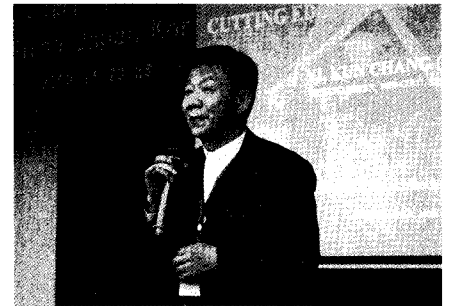
신춘규 이사



여구호 위원



진린 초청연사(아키텍트)



이근창 위원



중국 장리 초청 연사



일본 이와타 사코 초청 연사

이 정부에서의 관심이 축소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원래 NABAR에서 APEC 등록건축사를 통해 자국에서 실무를 하는 외국건축사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제약을 두고자 했다는 것이나 지금은 그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무튼 3국은 APEC 등록건축사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기로 동의했다.

등록건축사 관련 법령·제도에 관한 사항
【여구호 국제위원】

□ 각국 발표내용

1) 중국

중국은 2009년 중국건축사 현황을 1급건축사 시험지원생 23,177명이 응시해 1,416명이 합격함으로써 합격률은 불과 6.11%였으며, 2급건축사는 10,251명 지원해서 850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8.29%였다.

현재 등록건축사 수는 1급건축사가 21,276명 2급건축사는 20,340명이며, NABAR는 건축사 인터내셔널 핸드북위원회를 발족하고 APEC건축사 프로젝트 모니터링 위원회가 최근 3년 동안 숙고한 APEC건축사프로젝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구현했고 이와 같은 지속적인 회의가 한·중·일 3국간에 확실한 결과를 보여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2) 일본

일본은 건축사법의 수정사항과 건축사의 정의 및 현재 등록건축사 총 숫자와 건축사가 3종류로 분류되어있으며, 첫 번째로는 1급건축사가 329,535명이고 업역은 모든 건축관련 디자인과 공사감리를 할 수 있다. 2급건축사는 소규모건축물을 디자인하고 감리할 수 있지만 법규로서 규모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등록건축사는 706,219명이다. 목구조건축사는 소규모 목구조건축물만 디자인 감리를 할 수 있으며 등록건축사 수는 현재 15,664명으로서 2008년 총 등록건축사 수는 1,051,418명이지만 상당수는 중복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더불어 일본은 2005년 구조계산 사기행각으로 2006년 12월에 법안을 상정해서 2008년 11월 의회를 통과했고 2009년 5월

이 법안이 발효되어 현재는 구조설계 1급건축사(S.D.1급 건축사)와 기계설비장비 1급건축사(B.E.D.1급건축사)로 분리시켜 법에서 정의하는 규모이상은 모두 이들의 업역으로 관리되도록 정의되었다. 그리고 모든 건축사들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해야 만이 건축설계와 감리를 할 수 있지만, 건축사사무소 설립자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필히 자격을 가진 건축사를 고용해서 모든 일이 건축사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3) 한국

한국은 소규모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유지관리법과, 건축사법에서 건축사 자격증 없이도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 코오퍼레이션 사무실에 관한 법개정, 부동산 난개발과 사기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업법, 등록건축사의 무한정한 기소기간을 형법에 따른 기소소멸제,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 건축사의 날인, 건축사도 디자인 빌더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 건축디자인은 창조성 작업으로서 부가가치제외대상에 편입시켜야 하는 논의, 등록건축사위원회의 설립초안 및 국회계류사항,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역할과 기능 등 기본계획을 소개했다. 더불어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한 세움터 소개 및 시연 프로그램을 10분간 상영함으로써 한중일 건축사들의 관심을 갖게 했다.

□ 의견 및 소감

짧은 시간에 3국의 국내건축현황을 소개하는 것은 시간상 제약으로 한계점은 가지고 있었지만 3국 모두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언급함으로써 무엇이 각국의 현안인지를 소개하는데 충실하였다. 특히 일본의 사기성 건축구조계산서로 인해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고 건축사를 구조전문건축사와 설비기계장비 건축사로 분류시킨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우리의 건축관련 문제점들을 솔직하게 파헤침으로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리라 본다. 특히 건축감리 문제점과 건축허가시

스팀의 문제점 등등.

건축분야 기술정보 교류

【민규암 국제위원】

□ 제1주제 - 각국의 중간규모 도시·지구 개발

1) 일본

○ 발표제목: 지역타운에서의 도시설계

○ 발표자: 이와타사코

일본의 도시는 모두 비슷한 성격의 주거계획으로 최근 형성되어져왔다. 그 결과 각 지역은 고유한 성격을 잃었으며 추운지역부터 더운 아열대까지 모두 특성을 잃고 말았다. 발표자는 일본에서 지역성을 회복하는 예로써 작은 지역 도시개발의 사례로써 미하루라는 소규모 도시재개발을 예로 보여주었다. 이 예는 약 30년의 시간을 갖고 계획되어지고 실현되어졌는데 과거 400년 전의 도시지형도가 다시 검토되어졌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게 되었다. 건폐율은 5% 용적률은 10% 정도의 최소한의 것으로 구성되었고 도로는 차로가 포함된 전면도로와 그 뒤의 주택들과 인도가 더 중시되는 소로로 계획되었고 그 주변을 1~2층의 낮은 주택들이 들어서서 고즈넉하고 인간적인 도시를 다시 형성시킬 수 있었다.

2) 한국

○ 발표제목: 신도시 개발과 그 이슈(송도 도시계획 소개)

○ 발표자: 진린(주.아키펠랜 종합건축사사무소)

한국 인천 송도의 도시설계에 대해서 이를 담당한 아키펠랜 건축사사무소의 진린실장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송도 신도시의 위치와 자유경제지역으로서의 중요성 그리고 이 신도시가 어떻게 서울 및 인천과 지역적으로 연결되어있는지가 소개되었다. 그 다음으로 1998년 OMA에 의해서 제안된 최초의 도시설계가 설명되었고 그것이 2009년 현재의 도시계획과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설명되었고 한편으로는 KPF가 참여한 중심상업지역 설계에 대한 소개가 보충되었다. 그 밖에 간척된 땅에 도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어떻게 스카이라인 형

성계획이 만들어졌는지와 보행자를 고려하
기위해 어떻게 다양한 도시 밀도가 도입되
었는지 설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송도지
구내의 작은 한 블록을 예로 제시하였고 이
블록에 어떤 도시설계지침이 마련되었는지
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예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체에 의해서 제안된 설계안을 보여
주었다.

3) 중국

○ 발표제목: 정체성에 대한 존재론적 접근
○ 발표자: 장리
발표자인 장리는 청화대 건축과 교수로써
주로 작은 타운개발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였는
데 여기에는 케네스 프램스톤이 말하는 존
재론적인 건축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졌
다. 이에 의하면 고전을 장식적으로 따라가
는 것과는 다르게 건축에 진정성을 갖도록
할 때 비로소 건물의 정체성이 생긴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그는 그가 설계한 2개
의 프로젝트와 다른 두 중국 건축사의 작품
을 보여주면서 그의 이론을 설명해 나갔다.

□ 제2주제 - 각국의 설계 소개

1) 일본

○ 발표제목: 아리타의 기후를 고려한 주거
설계
○ 발표자: 코이치로 시미즈
아리타는 일본 큐슈에 있는 전통적으로 도
자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발표자인 시미즈
는 이곳에 설계된 여러 건물들 주로 저층의
전통적인 구조를 갖는 그러나 그렇게 오래전
에 지어진 것은 아닌 최근의 건축물들을 예
를 갖고서 지역기후를 반영한 설계안들을 보
여주었다. 그 예로는 다음의 건물들이 발표
되었다: 큐슈 도자기 박물관, 아리타 도자기
대학, 야마구치 주택, 커센 스튜디오와 숙소.

2) 한국

○ 발표제목: 한국의 현대건축(임이건축의
최근 설계들 소개)
○ 발표자: 이근창(주.엠앤디 종합건축
사사무소)
한국의 건축물들은 1950년대의 전란으로
거의 모두 소실되다시피 했었고 그 이후 급

속도로 지어진 것들이었다. 이런 건축 상황
에서 한국의 건축사들은 매우 적은 시간 내
에 많은 건축물들을 설계해야만 했고 임
이건축의 프로젝트들 역시 이런 프로세스
의 일부였다고 소개되었다. 여기에 소개된
건물들은 다음과 같다. : 하이마트 본사, 경
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시그넵타워, 송도
OK센터, 송도 연세국제단지, 충남 콘벤션
센터, 원주 아이스하키링크, 하노이 랜드마크
크타워.

3) 중국

○ 발표제목: 장시성의 건축유산과 보존
○ 발표자: 아오 탕
난창대학교의 건축과 아오 탕 교수는 양쯔
강의 서쪽을 의미하는 장시지역이 이미 진
나라시대부터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송나라 때는 크게 번성하였으며 13세기에
서 15세기 간의 원나라 시대의 내전시대를
거쳐서 16세기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
다는 이 지역의 역사적 소개와 함께 이 지역
의 건축물들을 크게 사원, 주택, 요새형 집합주
택인 웨이우 그리고 목구조와 벽돌구조가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구조 등으로 이 지
역의 건축특성을 설명하였고 이 지역의 대
표적 건축물들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맺음말

이번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에서
는 한국에서 본 협회의 최영집 회장과 국토
해양부의 최종화 주무관을 포함한 11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국제 프로젝트를 하고
자 하는 각국의 건축사들을 위한 핸드북 작
성에 대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잡고, APEC
등록건축사제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
으로 협의를 하며 공조체제를 갖추기로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협의회 발족 당시부터 2004년까지는 총 8
회 회의 중 6회에 정부 측 인사가 동참하였
으나, 지난 2005년부터 4년간은 참석이 없
었다. 금번 협의회에는 지난 협의회 결과
를 반영하여 국토해양부 인사의 참석을 추진
하였으며, 논의의 대부분이 제도적인 뒷받침



다오위안 구촌 건축



제13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 기념사진

이 되어야하는 주제인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게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앞
으로도 꾸준한 참여가 있었으면 한다.

금번 협의회 이후 회의(건축분야 기술정
보 교류세션) 중 지역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서 한국과 일본, 중국의 개발 방향의 차이점
을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일본과 중국이 작
은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역사를 존
중하며 장시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개발을
주도한 선례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위원회